

주낙영, 정치인생 최고 '흥행작' 2025 APEC 유치

사상 첫 기초지자체 유치 성공
21개국 정상 포함 6000명 방한
경제적 파급효과 2조이상 기대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이 해냈다. 경주시의 최대 염원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로 정치인생 최고의 흥행작으로 남게됐다. 신라천년의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환관 날갯짓을 하게됐다. 주 시장을 중심으로 경주시민 똘똘뭉쳐 3년간 유치 총력전에 나선 결과다. 기초자치단체라는 초기 우려를 극복하고 인천, 제주를 따돌리고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정상회의 기간 21개국 정상을 비롯해 6000여명의 관광과 기업인, 언론인이 한국을 찾는다. 시는 내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2조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로 불국사, 석굴암, 동궁과 월지, 월정교, 양동마을, 첨성대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



를 맞은 만큼 신라의 천년 고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경제에도 상당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대구경북연구원 효과분석(2021년 7월)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경주에 지출하는 사업비와 방문객 소비지출이 경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하면 생산 유발 9720억원, 부가가치 유발 4654억원, 취업유발 790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상회의 기대 이익은 경주 인근 도시로

도 확산된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한 포항 철강·2차전지, 울산 자동차·조선, 구미 반도체·방산, 대구 정보통신기술(ICT)·의료, 부산 물류·금융, 경남 항공우주·원자력 등을 적극 알릴 수 있다.

경주시는 2021년 7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을 선언한 뒤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민 의지를 결집하는 등 3년간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9월에는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85일 만에 146만3874명이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7일 김석기 의원(경주)은 대구·경북 국회의원 27명과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31명 등 58명이 서명한 '경주 유치 지지 성명서'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외교부 등 중앙에 끊임없이 경주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을 다했고 도민들도 유치전 홍보에 적극 동참했다. 그동안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 경제 안전,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과 미래 공유 최적지,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의 최적지, 세계문화유산 등당위성과 강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주 시장은 "경쟁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모든 게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경주가 마침내 해냈다"며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대구기초의회 의장들 연임 움직임... 논란

북·동·서·남구의회 의장들 연임 의사 내비쳐 논란... 기초의회 의장이란 자리 자신만의 자리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부 기초의원 반발 불러

대구시의회에서 첫 연임 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지역 내 기초의회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9대 후반기 의회 의장단을 오는 25일 정례회에서 선출한다. 후반기 의장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현 의장이 연임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대구시의원 26명은 지난 14일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이만규 현 의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내 기초의회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구, 동구, 서구의회 현 의장들은 연임도 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작·간접적으로 연임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 회기가 끝나면 다음 주중으로 확실한 의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문 동구의회 의장은 건강 이상설로 연임 가능성이 없다고 거론했지만 최근 나을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3선 정인숙 동구의원은 재출마를 공식화했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자의 반 타의 반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중이다. 이충도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도 연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충도 의장은 "혼자 욕심내도 안 된다"며 "의원들과 상의 후 회의를 위해 어느 방법이 좋을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의장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의원은 정재묵 전반기 부의장, 송민선 의원 등이다.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에서는 후반기를 이끌 의장 후보로는 새로운 주자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동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오성 전반기 의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박정환, 이선주, 정창근 의원 등이 후반기 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중 박정환 의원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 가능성에 대해 수성구의회 전영태 전반기 의장은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선거구 갑과 을 지역에서 번갈아 의장을 선출하는 관례가 있는 수성구의회는 조규화 4선 의원, 김재현·홍영임 3선 의원 등 다선 의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미경 기자

송미령 농축산 장관, 경북에 온 까닭은?

경북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긴급점검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북도를 방문, 영천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추진 상황을 긴급점검했다. 송 장관은 경북도청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함께 현안사항을 협의한 후 상주시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가 설치된 현장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경북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영덕(1월 15일) 첫 발생 이후 5개월 만에 지난 15일 영천에서 발생했다. 현재 영천 발생농가 사육 전두수(2만 5900마리)를 살처분·매몰했고 관련 역학농장, 계열농장, 위탁농장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인접 시군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 소독차량(137대)을 총 동원해 주요 도로와 축산시설 등을 매일 소독하고 양돈농

가에 멧돼지 기피제와 소독약을 배부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북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검출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점검 등을 하고, 농가에서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멧돼지 발생 빈도 등 과학적 분석결과를 제공받아 위험도가 높은 농가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성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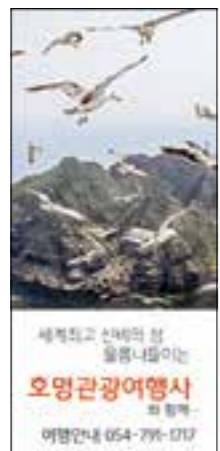
경북교육청정보센터 행정 주먹구구

수의계약·수당지급 부적정으로 '주의'

경북교육청정보센터(경산)가 수의계약 부적정, 시설공사 면허 부적정, 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공사 예정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하고,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전문공사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지난해 주차장 지붕 판넬공사 등 3가지 공사를 발주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임에도 경비, 일반관

리비, 이윤을 예정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로 산정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해야 하지만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공사를 계약했다. 정보센터는 또 공무원은 자기 소관 사무외의 위임으로 위촉됐을 때에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122만원의 지급했다. 김성용 기자



단체장 일정



최재훈 달성군수는 24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24일 칠곡군(캠프캐틀)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의무물자 지원단 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NOW & NEW
새로운 국가산업단지의 패러다임
지금 경북에서 펼쳐집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경주 SMR(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안정성·유용성·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미래 원자로 SMR! 국지 전원 공급, 지역난방, 산업용 공정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원자력 산업 플랫폼과 함께 미래전략산업도시로 도약합니다.

위 치 경주시 분부대영면 두산·아열·송전리 일명
규모 1,504,912㎡(46만평) **기간** 2023-2030년
내용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소재 부품-정비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글로벌 혁신 바이오 허브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혁신 연구·제조·출시가 원동력으로, 안동 혁신산업특구로서의 특보적 시스템! 우수한 교통 접근성, 대구경북혁신공약과의 연계성까지 갖춘 이곳에서 바이오혁신 강국별 이끌어나갑니다.

위 치 안동시 봉곡면 노리 일명
규모 1,320,000㎡(40만평) **기간** 2023-2028년
내용 바이오 혁신, 헬스 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수소 경제기 산업 생태계를 통한 국가 수소경제 선도! 원자력의 풍부한 공정열, 저열한 전기를 활용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요한 에너지를 더 안전하게 생산합니다.

위 치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명
규모 1,578,270㎡(48만평) **기간** 2023-2030년
내용 원자력 활용 정합수소 대량생산 핵심기지, 저세력 수소생산 기술 실증연구

신라천년제국 왕의 도시 경주서 정상회의 당연

경주, 국가와 지역발전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높은 평가 이철우 경북지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천년수도 역사문화도시 강점 덕분 이다 APEC유치 계기로 경주가 다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경주는 최근 국제 분위기에 한껏 달아올랐다. 신라천년 제국의 땅 경주에 APEC 정상회의가 열릴기 때문이다.

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경주가 '국가와 지역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APEC 정상회의 개최도 시안정위원회 제4회 회의를 열고 APEC 준비위에 경상북도 경주시를 개최 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상북도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정위는 내년 APEC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 등 주요 회의를 이년에 선정되지 않은 인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할 것을 함께 의결했다.

반면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서 '경주'에 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치적 평가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인천시장은 "APEC 개최지 결정 불공정이다.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주시 선정 과정은 평가 공모기준에서 벗어났다는게 이유다.

20년만이 도전에 완쾌한 오영훈 제주시도 정치적 결정이라고 쏘아부쳤다.

오 제주시장은 개최도시로 사실상 결정된 경주시에 축하인사를 보내며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지방정가와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선정과정의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건의안은 27일 정부 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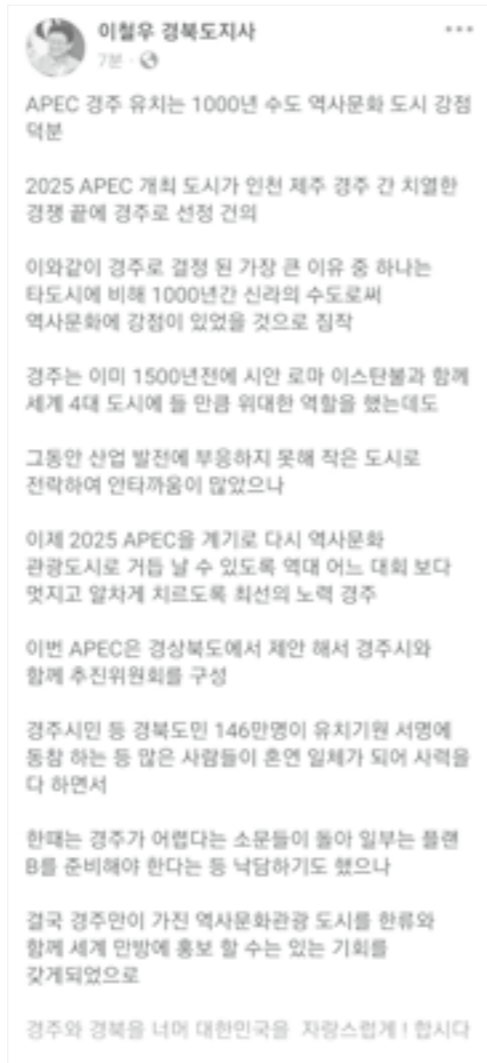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이철우



주낙영



이철우 지사 페이스북 메시지

APEC 회의를 개최한다.

■경주는 축제 분위기

경주 전역이 2025 APEC 정상회의 의결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주'를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선정위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해 국가·지역 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를 다수결로 결정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놓고 경주와 함께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가운데 나온 성과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3일 "후보지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 균형발전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충분한 명분과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주가 가진 고유 정체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경험과 잠재력, 혁신 경제의 모범 모델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선정위원회가 개최 도시로 경주시를 선정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주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유치도시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일 "유치전에 뛰어난 후보 도시들과는 도시 규모 등에서 비교되지 않을지 몰라도 경주가 품고 있는 역사성이 국내 최고인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 전역은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의결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도심 곳곳에 붙었고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 SNS에는 이를 축하하는 포스팅으로 도배됐다.

손윤희(54·여)씨는 "경주시민의 염원으로 유치가 성공했습니다"며 "경주의 자긍심, 경주시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53)씨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로 결정"됐다고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천년의 역사 도시이며 왕의 도시인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다", "경주 선정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며 반색했다.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2조원을 웃돌 것"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의 50%를 차지한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21개국 정상과 비서비 6000여명 관료와 기업인, 언론인 등이 대한민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경주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천년수도 역사문화덕분

이철우 경북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천년수도 역사문화도시 강점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PEC 개최 도시가 경주로 결정된 큰 이유 중 하나는 타 도시에 비해 1000년간 신라의 수도로써 역사문화에 강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는 이미 1500년 전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에 들 만큼 위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동안 산업 발전에 부응하지 못해 작은 도시로 전략해 안타까움이 많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번 APEC을 계기로 경주가 다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북도의 제안으로 경주시민 등 경북도민 146만명이 유치 기원 서명에 동참하는 등 많은 사람이 혼연일체가 돼 사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때는 경주가 어렵다는 소문이 돌아 일부는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등 낙담하기

도 했으나 결국 경주만이 가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한류와 함께 세계민방에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APEC 정상회의 숙소, 수요대비 280% 확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사실상 선정된 경주시는 주회의장으로 사용할 화백 컨벤션센터 10km 이내에 5성급 호텔과 대규모 리조트 등 1만3265개 객실을 확보해 수요 대비 280%에 이른다.

시는 "회의장 등 면적이 2만 8199㎡로 2005년 부산 APEC 때 사용된 면적(2만 6185㎡)보다 넓고 전시설, 숙박시설 등이 집적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블루윈, 황룡윈, 교원드림센터, 농협경주연수원에도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김해공항, 대구국제공항, 포항 경주공항, 울산공항 중 3곳이 군사 공항이어서 민간 공항보다 통제·관리가 쉽고 국민 의전과 경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가 "개최 명분과 목적뿐 아니라 파급 범위와 효과 면에서 최적의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시는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지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 균형발전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충분한 명분과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와 1시간 거리에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포항과 울산, 구미, 대구, 부산 등이 위치해 있다. 영남권의 첨단 혁신산업을 연결할 경우 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등 APEC이 추구하는 3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경험과 잠재력, 혁신 경제의 모범 모델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윤용찬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TK서 민생토론회<I>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제공)

尹, 울진 청정수소 생산산업 거점 도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생 토론회 경북에서 열렸다. 26번째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두 번째로, 지방에서 연 것은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5달 만이다. 토론회에는 경북 지역 원전·수소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인·스타트업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했다.

본지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 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3회에 걸쳐 실는다.

윤 대통령 주도하는 26 번째 민생 토론회 울진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 거점 되는 지원방안 적극 마련

민생토론회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방안도 모색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호국역사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도 민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됐다.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정부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형 SMR 노형 개발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하는 등 노형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SMR이 포함되고 해외 주요국도 '30년대 초반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노형 개발 뿐만 아니라 SMR 기자재 제작, 시공 등 파운드리 역할이 글로벌 SMR 시장 패권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SMR 분야 혁신제작기술 및 공정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향후 혁신제작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주요 기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한편, 제작 비용 및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SMR 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SMR 기자재 제작 핵심 장비를 원전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SMR은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바, 미래에는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이 SMR 분야로 확장되면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은 6기의 원전, 한수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후보지) 등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인 만큼, 정부는 경북지역을 우리나라의 SMR 미래경쟁력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구미 반도체 첨단전력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 지원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와 같은 지역이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반도체 제조 중심 클러스터와 연계된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미산단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는 구미 국가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은 반도체 칩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장기간의 기술개발과 수차례의 성능평가를 거쳐 공정 투입 가능성을 확인한다.

구미는 실리콘웨이퍼, 쿼츠웨이 등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로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극한 온도, 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 조건에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한 국내 환경을 고려해 국

방 등 수요기업들이 소재한 구미에 2026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수소 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울진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무탄소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작년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런 강점을 살려 울진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은 탄소중립 실현과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청정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연계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반연구(한수원, 2022-2024년)를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의 연계 방안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계적 실증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경북 울진에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소 산업 집적·융합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예타 사업 지원도 검토한다.

민·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이 예상되는 경우 울진을 수소특화단지로 신속 지정하여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

안정적 청정수소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수요가 있는 국가에는 수전해 설비가 추가된 원전 수출이 가능해져 우리 원전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그간 재정지출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 가능하다.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했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금년에

만 최소 3조원의 지역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3월 26일 출범식에서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 폐철도 터를 복합 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총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 등 2건의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도 지자체이다.

정부는 다양한 경북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공동영농 등 농업·농촌 혁신모델 확산 지원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력·자본·기술 유입 촉진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북의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은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 소멸 우려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해 개별영농을 공동영농으로 전환한다.

기술·인력 문제 해결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 모델의 하나로 주목할 만하다.

공동영농 등 새로운 경영방식과 스마트팜을 활용한 경북의 성공적인 혁신농업타운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나간다.

문경 등 여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방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올해 관련 예산을 보면 공동영농 관련 415억원, 스마트팜 관련 2540억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115억원이다.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등 농촌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농업 첨단화, 지역 산업 융복합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활성화한다.

농식품부는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까지 현장의 수요와 사례 분석을 통해 농업혁신, 산업 활성화 등 유형을 구체화해 추진 방안을 수립,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조미경 기자

동구청, 전 직원이 함께한 더 청렴 문화제 성료

동구청은 '더 청렴(廉)문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문화제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17일에는 '다(多)가지 청

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희망찬 동구 내일의 디딤돌'을 포함한 여섯 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이화선 작가의 '청렴 캘리그래피' 공연이 진행됐다. 또 문화제가 개최되는 5일간

청렴, 조직문화를 주제로 하여 전 직원이 소통하는 'Δ청렴 토크콘서트 Δ영화가 좋다! 청렴이 좋다! Δ청렴 오락실 Δ청렴 워크숍'을 실시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구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한민국 ABB산업 선도
총 4개 분야 특구 선정 기쁨

수성구가 대한민국 ABB산업 선도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된다.
지난 20일 수성구는 디지털 산업 혁신 거점 '수성알파시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대구에서는 수성알파시티 외에도 대구국가산단과 금호위더폴리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는 4,525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243개 기업, 기업지

원 인프라 13개 등을 갖췄다.
SK리츠운용(주)·SK(주) C&C 컨소시엄을 비롯한 6개 기업이 1조 39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지역제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보급하는 AI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수성구는 이를 계기로 수성알파시티가 대한민국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성구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4개 분야에서 특구 지정을 이뤄 문화·교육·경제를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지난해 9월 교육국제화특구, 12월 문화특구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4개 분야 특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지역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수성구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노사평화의 전당 기획 전시

해외인력파견 두 번째 이야기
파독근로자 삶과 여정 되돌아보며

대구시 노사평화의 전당은 오는 25일부터 '해외인력파견 두 번째 이야기 '파독근로자의 삶과 여정을 되돌아보며'를 기획전시 한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1960~70년대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며 해외인력파견 노동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해외인력파견'을 주제로 지난해 첫 번째(파월기술자, 중동건설 붐)전시에서 이어 두 번째로 독일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파독근로자들의 삶과 여정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유물, 체험관, 기타 역사자료 등을 전시한다.
특히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그들의 삶과 여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평화의 전당은 전국 최초로 세워진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소통과 교육의 공간으로 주말에도 정상 운영(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체험·관람

(10:00~18:00)이 가능하다.
노사평화의 전당에서는 지역 노동환경의 역사적 변화를 알 수 있고, 노동열사를 추모할 수 있는 노동역사관과 산업화가 시작된 개항기부터 최근까지의 산업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산업역사관을 비롯해 대구관, 직업 모의 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경험해 볼 수 있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파독근로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파독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더욱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강화해



달성군보건소는 지난 18일 군민소통관에서 달성군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시간으로 진행됐다. 응급활동의 원

칙 및 내용,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교육용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실습까지 완료했다.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 보건소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내에 상설교육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의회, 제281회 정례회 폐회

군위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8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는 대구시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활동 지원을 위한 대

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영숙의원)이 통과됐다.
박수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의원 여러 분들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처리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안 처리에 임해주셨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 여러분 결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중구보건소,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 협약 체결

민·관·학 협력, 심뇌혈관질환 헬스 체크업 프로젝트 운영

중구보건소는 지난 20일 중구 보건소에서 KMI한국화학연구소 대구검진센터와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 협약(MOU)을 체결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KMI한국화학연구소 대구검진센터는 △2023 건강진화기업으로 인증받아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조직원 연령이 2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민·관·학 협력 심뇌혈관질환 헬스 체크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등 검진 사후 관리 체계 활성화 및 직장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보건관리자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안심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검진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실, 직장인 틈새시간 활용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니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목표 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형질환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 관리 등을 활용한 환자 접근성과 개입 강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침에 따라 젊은 세대의 혈압, 혈당 측정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중구, 특화거리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중구청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중구청 5층 대강당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구에 있는 명물골목과 특화거리에 특색있는 공공디자인과 상권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서는 1부 △김준우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중구만의 특색 있는 특화거리 조성 방향성 제시' △이은일 영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의 '국내외 특화거리 활성화 우수사례 및 발전방안' △이연소 ㈜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 총감독의 '감성을 담은 빛의 도시디자인' 주제 발표를 시작한다.
2부는 임상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성현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병식 (사)아름시보존위원회 이사장이 1부 발표자 3인과 함께 패널로 참여해 전문가 토론회를 펼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화거리를 활성화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 자리"라며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에는 공구골목, 수제화골목 등 14개의 명물골목과 김광석길, 웨딩거리, 봉리단길 등의 특화골목이 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감성중심 청렴콘서트 개최

달성군은 지난 21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콘서트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콘서트는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재미와 감동을 담은 문화공연 교육을 통하여 청렴을 좀 더 친숙하게 인식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따른 내적갈등 및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텔링 마술 공연과 청렴 메시지를 담은 아카펠라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소 무겁게 느낄 수 있는 부패 상황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감성 중심의 청렴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청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청렴콘서트를 통해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공직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더 시원해졌다! 이번 여름은 삼국유사테마파크로!

오는 29일부터 개장
테마파크이용 입장객 무료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 물놀이장이 오는 29일 개장한다.
해룡물놀이장은 오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운영하고,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물놀이장은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한다.
삼국유사테마파크 물놀이장은 대구 근교에 위치해 주말 가족주말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다. 또한 물놀이장은 물놀이 풀장, 놀이시설,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갖춰져 여름 휴가지로써 관광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다.
특히 이번 물놀이장 개장을 위해 물놀이 주변 시설 점검 및 보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고, 고객편의를 위해 물놀이장 주변 커피를 조성할 예정이다.
물놀이장 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삼국유사테마파크 홈페이지 (www.gunwi3964.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도의회 예결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

노성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 166명 중 96명 경북 정착하지 않고 타 시도로 유출됐다 주장

경북도의회 전반기 정례회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제12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났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20 이틀간 경북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29일 구성된 제12대 경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도청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까지 도민의 혈세를 세심하게 살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10월 포항, 영덕 동해안 주요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고통받는 어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년여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에 예결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도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찾아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로 이날 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경북도의회 예결위 활동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세입추계 정확성도, 이월·불용액 최소화, 집행률 제고를 통해 시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도의원(구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명시이월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 유보통합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도의원(구미)은 지방상생 기업 펀드에 관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해 케이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뽕동김밥을 만드는 데에 적용시킨다면 경북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도의원(비례)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없다고 지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 훈련인데 물품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40%가 국고로 귀속된다며 금액이 상당하긴 만큼 타시도에서 도입 중인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하여 40%나 되는 금액을 감액해 볼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도의원(안동)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 경북도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도의원(예천)

매년 반복되는 세입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이 저해되니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도의원(청송)

악기뱅크 사업에 대해 좋은 취지에 비해 운용



제34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당부했다.

교육청의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에 비해 두배나 늘었다고 질타하고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검토를 통해서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도의원(경산)

경북이 성평등 지수가 하위 지역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기존 고령층 대상으로 하던 인식 개선 관련 교육보다는 사회에 진출한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대상 조부모 돌봄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저출생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도의원(칠곡)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많으며 이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 성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실적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국외출장여비가 매년 사고이월되고 있다며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 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도의원(구미)

독도 관련 사업을 질의했다.

독도 영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경북도에서 재추진을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독도 관련 사업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도의원(포항)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에 고소 살수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필요한 소방장비는 빠르게 확보하여 화재발생 시 민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육관련 전자제품들은 최신형으로 공급하여 학생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도의원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소방본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냐고 질의했다.

앞으로 통합이 되면 자치소방이라고 간주할 하고 소방본부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최병준 도의원(경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며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 피해복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

기술직 공무원 시기양양을 위한 인사대책 마

련을 주문하고 지역 공공의료원에 의사가 부족

한 점을 들었다.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학생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박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

대구경북통합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동일성이 있는 시군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여 향후 벌어질 상황에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가 원자력 관련 업무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에너지 독립을 위해 경북이 선도적인 자세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기초지자체와도 협력, 에너지 부분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철구, 그린철강시대 주도해야



이철구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포항의 포스코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철강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실비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에 위해 2050년까지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포항의 철강산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변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성공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여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고, 전세계

에 ‘영일만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위해 포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의 ‘제철보국 정신’이 국가산업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강조하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사업’에 8000억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수소경제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경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항 시민과, 도민에게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포항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건인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노성환,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유출 현실화



노성환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 166명 중 96명은 경북에 정착하지 않고 타 시도로 유출됐다. 타도의 공격적인 청년창업농 유입 정책에 지금처럼 경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 도의 공간을 텅텅 비어 타도의 인재만 육성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의 경우 2022년부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 타 시도 출신의 혁신밸리 수료생을 비롯한 가족단위 농가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충남도 같은 해부터 전북과 유사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올해 충남도의 사업에 상주 혁신밸리 출신 교육생이 4명이나 선정되었을 정도로 유출은 현실화되고 있다.

노성환 도의원은 “타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청년농을 지키고, 타 시도의 우수인 인재까지 유입할 수 있는 경북도만의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원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을 위해 신용

보증제단을 통한 보증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등 세심한 정책지원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박규탁, 공공기관 인사 적정성 제고



박규탁 도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 인사 청문회 조항(제47조의2)이 신설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도의회도 경북도 산하 11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후보자의 능력자질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은 하고 있다.

그는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자질부족과’ 부적합 판정 등에도 그동안 인사권을 가진 도시사가 대상기관 후보자 전원을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실효성 있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 구축을 피력했다.

지난 10년간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임명된 공무원 출신 임직원이 600여명이 넘었던 만큼, 이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자리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 혹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공직출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성 있는 채용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주문했다.

출자출연기관장 목표사업 부여와 연임규정 정비와 관련, 현재 기관장 임용시 관습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거나 탈성하기 쉬운 목표를 만들어 평가를 좋게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에서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목표를 부여, 이를 달성하고 평가하는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강조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기관마다 다른 상황을 지적하고, 권력의 집중과 부패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연임규정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도정발전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경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경주시가 물 재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5월까지 시 전역을 대

획을 바탕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운영현황, 수요량 전망, 재이용 목표량 등을 포함한다.

물 재이용 시설은 지역 내 경주공공하수처리장 재이용 시설을 비롯해 빗물 재이용 시설, 중수도 등이 있다.



김성학 경주부시장 36년 공직생활 당신이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김성학 경주부시장 마음의 안식처였던 '동지' 떠나 새 동지 시작과 끝을 경주서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여러분결에 영원한 '자유인'으로 다음을 기약한 채...

김성학 경주부시장이 이제 경주시청을 떠나 영원한 자유인으로 돌아간다. 그토록 많은 바람과 아쉬움을 뒤로한채 마음의 안식처였던 동지를 떠나 새 동지를 든다. 김 부시장은 시작과 끝을 경주에서 이별 행정을 고한다. 그는 오는 28일 열리는 퇴임식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김 부시장은 공직사회 행정전문가로 정평 나 있는 입지적인 인물이다. 행정 9급 서기보로 시작해 3급 부이사관까지 올랐다. 김 부시장은 "공직생활의 많은 이듬으로 만남과 이별에 둔갑해졌지만 전혀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한편으로 허물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후배를 위해 자리를 물려준다는 흥겨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8년 스물셋 청년에 공직(9급 서기보)에 첫발을 내딛은 후 첫 부임지인 월성군청 양북면사무소(現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로 눈으로 뛰었던 시절"을 회상했다. 김 부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불태웠던 시절, 1992년 경북도로 자리를 옮긴 뒤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혁신담당장관, 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기획단장, 경주

엑스포대공원 사무처장 등 세월속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덧붙였다. 공직생활에서 어떤 때는 행복감과 참으로 뿌듯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았지만 이보다는 고난과 역경으로 갈등과 고민의 순간이 더 많았다고 털어냈다. 그러나 파도가 험할수록 배사공의 가슴은 더욱 뛰듯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때가 진정한 행복한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용솟음치고 있는 격변과 격동의 시대를 맞아 우리 행정조직도 그 소용돌이에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 고삐 아픈 말을 던졌다. 김 부시장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일밖에 몰랐던 남편을 이해해주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힘들때마다 나에게 큰 위안이 됐던 아내에게 가장 많은 고마움과 사랑의 정을 듬뿍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늦은 귀가와 잦은 이동으로 애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지만 반듯하게 자라준 자식들이 너무나 고맙기에 이제부터라도 아내와 자식에게 그동안 못다한 남편의 사랑과 아버지의 정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제 고향 경주에서 마지막을 할 수 있어 돼 너무나 기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항상 경주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고향이자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은 경주시청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금의환향'이다. 경주부시장 취임 당시 "경북도청에서 정책과 기획, 해양수산 업무를 맡아 오다가 고향이자, 공직자로 첫발을 댄 경주로 다시 오게 돼 팽팽한 긴장감마저 든다.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주시 부시장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취임 후 환경부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

모선정, 국가하천 현상강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 등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김 부시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선제적 방역조치 및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등 적극 행정으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경주비전 2040 미래융합발전계획 수립과 미래발전 7대 핵심정책 기획 및 추진, 10대 뉴브랜드 개발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직접 챙기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경주미래 100년을 향한 초석을 다지는데 한 몫했다. 이 뿐 아니다. 영원한 신라천년제국의 부활을 알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에 모든것을 불태웠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실제 지난달 20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현장실사단 경주 방문 당시, 대의원과 월정교, 국립경주박물관을 거쳐 정상 입국 장소인 김해 국제공항 내 VIP 의전실을 직접 안내하며 APEC 정상회의 유치에 힘을 실었다. 경주시 현국면 무과리가 고향인 김 부시장은 현곡초·문화중·경주고를 거쳐 경북산업대 행정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공직생활 중에도 경북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 등 '학구파 공무원'으로도 불린다.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조직원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해 상급자와 부하직원 모두가 선호하는 '스마일맨'으로 정평이 나왔다. 김성학 부시장은 "동료, 후배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제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결에 있다"며 작별을 고했다. 다음을 기약한 채... 김성용 기자

경주 보문유원지 개발사업 급물살

경주 보문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대행사(㈜지비엠파트너스) 선정 '경주 보문유원지(천군지구) 개발사업' 다시 급물살 타게 됐다. 보문유원지 토지구획 정리조합은 지난 15일 '2024 제2차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 보문유원지(천군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대행사

로(㈜지비엠파트너스)를 선정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안정적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합은 지난달 10일 제4차 이사회에서 기존 시행·대행사인(㈜랜드원과 사이의 위·수탁계약해제의 건을 의결했다. 공동대표로 있던 권오민 대표가 조합원들의 염원인 중대한 사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사회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권오민 대표가 새로 설립한(㈜지비엠파트너스)를 시행·대행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의결, 지난 15일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시행·대행사 선정의 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비엠파트너스는 당면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문화재 미 발굴지역에 있는 건축물 등의 지장물 보상공고 등 보상절차에 돌입했다.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구이전공사에 착수, 올 7월까지 완료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주낙영, 주마가편 마음... 중단 없는 경주 발전 박차

경주시, 조직 개편 단행... 실무형 조직으로 새판 짜

경주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경주시는 새달 1일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등 2개 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본부 등 1개 사업본부를 폐지한다. 7국 1사업본부 체제로 변경되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젊고 민첩한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된다. 조직 개편은 지난 3월 인구수에 의한 시·군·구의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부서 간 협력을 위해 △시민복지국이 신설되고, 날로 증가하는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녹지국이 신설된다. △농림축산해양국은 '농축산해양국'으로 △시민행정국은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도시재생사업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부서를 소관 성격에 맞는 국으로 재편된다. 기존 시장 직속이었던 △인구청년담당관은 시민복지국으로 소속을 옮겨 '저출생대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도시담당관은 행정안전국으로 소속을 옮겨 '디지털정책과'로 이름을 바꾼다. 폐지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속 철도도심재생과는 도시개발국으로, 자원순환과와 도시공원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옮기며, △사적관리과는 사적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바꿔 업무를 이어간다. 장애인시설의 지원 및 운영을 위해 △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시설팀을 신설하고, 보다 민첩한 행정 대응을 위해 △환경정책과 환경관제팀과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도 신설한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 변동은 없으며, 관련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라며, "핵심 공약의 추진에 속도를 더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성학, 살기좋은 농촌, 경주 살리는 농촌 희망

시, 미래농업·농촌 위한 새로운 도전 교육 실시

경주시 농촌지도자회는 '미래농업·농촌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교육 했다. 지난 21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교육에는 연합회 및 읍·면·동지회 대의원 8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방안' 전문가 특강과 농번기로 지친 농업인을 위해 행복·웃음 치유를 통한 건강관리 힐링코칭 시간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2050 탄소중립 희망농촌 실현'의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도 펼쳤다. (사)한국농촌지도자경주시연합회 차영득 회장은 "2050 탄소 중립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며 기후 위기 극복하고자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일상 실천 방안에 대해 1071명 농촌지도자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농업의 리더단체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농촌환경정화활



경주시 농촌지도자회가 21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50 탄소중립 희망농촌 실현'의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동을 5년째 이어 오고 있다. 토양과 수질오염을 없애고, 농업재해 예방과 농촌환경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학 경주부시장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가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농촌환경정화활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살기좋은 농촌, 경주를 살리는 농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수원, 지역복지사업 최우선 해결

한수원·선도이웃애복지단 함께하는 일대일 가족맺기

한국수력원자력(주) 전략경영단과 선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진복·손지연, 별칭 선도이웃애복지단)는 지난 18일 일대일 가족맺기 행사를 가졌다. 일대일 가족맺기 행사 식료품꾸러미는 한수원 전략경영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300만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선도이웃애복지단에서 일대일 가족맺기 결연가구 31세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일대일 가족맺기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홀몸노인, 가정폭력 피해가족 등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고위험군 세대에 정기적인 방문과 나눔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위원들은 이달 장기입원 등으로 서비스를 필



요로 하지 않는 대상자를 정비하고 복지사가 지대에 있는 신규 대상자를 2명 추가 선정해 육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진복 선도동장은 "항상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수원 전략경영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사리손도 72년 만에 발굴된 6·25전쟁 참전 용사 추모 나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고사리손들도 6·25전쟁 당시 전사하고 72년 만에 유해가 발굴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고 김희정 중위 추모에 나섰다.

칠곡군 왜관읍 천재어린이집 원생들은 지난 20일 고 김희정 중위를 추모하는 손 편지를 작성해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김 중위는 당시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육군 1사단 15연대 소속으로 1950년 9월 벌어진 다부동 전투에서 27세로 전사했다.

김 중위의 유해는 2022년 9월 가산면 응추리 뒷산에서 발굴돼 지난 19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응추리 주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농산물을 보냈다.

천재어린이집 원생들은 고사리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김 중위를 추모하고 나섰다.

최윤준(7) 군은“우리나라를 지키다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땅속에서 잠들어 계셔서 힘들었을 것 같다.”라며“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6월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를 상설로 진행하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고 있다.

6월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는 '국악아카펠라 토리스의 믹스&하모니'로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백조홀에서 진행된다.

국악아카펠라 토리스는 지역별 음악적 특징을 말하는 우리말 '토리'에서 따온 것으로,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의 소리를 아카펠라로 표현하는 국내 유일의 국악 아카펠라이며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은 서양의 아카펠라와 우리의 국악이 합쳐진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국악 아카펠라만의 개성이 담긴 무대로 아리랑, 심청가 등 아카펠라의 서양적 느낌을 뽐낸 국악과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 서양 음악을 국악 스타일로 편곡한 곡을 노래하며 국악, 아카펠라 어느 쪽에 관심이 있더라도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6월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 '국악아카펠라 토리스 믹스&하모니'의 관람료는 환경보호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옷, 현재 및 재래시장 사용 영수증 등으로 대신하며 5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840-3600)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누리집(<http://www.andong.go.kr/a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명주 기자

의성군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

지방분권에 주도적 역할 포부 밝혀

김주수 의성군수가 민선8기 하반기 협의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영덕 강구건강활력센터에서 민선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김주수 의성군수를 하반기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김주수 의성군수는 회의 회 운영과 함께 경북을 대표해 중앙정부와 연계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입안 및 개선사항 건의 등을 추진한다.

특히 22개 시·군 간 상호 소통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김 군수는 대한민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에서 경북대표로 활동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조율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민선 8기 하반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가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시기인 만큼 앞으로 경상북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재성 기자



6·25전쟁음식재현시식회 및 호국안보사진전시회 개최

한국자총 예천군지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는 22일 예천읍 중앙사거리에서 '6.25전쟁 음식 재현 시식회' 및 '호국안보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호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군여성회원과 청년회원 40여 명이 6.25전쟁 당시 먹었던 보리주먹밥, 보리개떡, 쑥개떡 등 1,000명 분의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군민들은 음식을 시식해보며 빈곤했던 그 시절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유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섭 지회장은 “이번 행사가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도 6.25전쟁의 의미를 일

깨워 주고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고,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스럽게 전쟁 음식을 만들어 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여성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고령군, “나도 작가~” 책 쓰기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고령군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고령군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책 쓰기 프로젝트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책 쓰기 프로젝트는 글쓰기와 출판에 관심있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신촌문에 당선 작가와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진행된다.

주제선정에서 글쓰기 연습, 원고 작성 및 피드백까지 문학적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수강생들은 여러번의 첨삭을 거쳐 수강 종료 후 팀원들의 글을 모아 완성본을 단편집으로 출간하게 된다. 출간된 책은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며, 지역 도서관에도 등록되어 대출과 반납 가능해질 예정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군민들이 자기 주도적 글쓰기를 통해 자아실현과 도전정신을 고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책 쓰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oryeong.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950-6271, 6276)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백 기자

문경시,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도비 확보 및 지방소멸대응 전략 수립

문경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민선 8기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과 20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해 임이자 국회의원, 황재용 문경시의회의장, 박영서 경북도의회 수석부위원장 등 시·도의원을 포함한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핵심 현안사업인 2024년 문경시 중점과제 및 신성장동력 TF전략 과제에 대한 추진성과 보고와 함께 내년도 신규사업의 국비확보 방안 마련

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경시는 송실대 문경캠퍼스 유치, 주출산 케어 불가 및 하늘길 조성,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구)쌍용양회 민간협력사업 등 핵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내년도 45개 사업 1814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폐곡지역 관광지원화사업, 공공 열분해시설 및 직매립 제로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문경역세권 ~ 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총 1591억 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 점촌농협 사과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등 223억 원이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경시의 역점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공무직 복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현국 시장님께 감사를 전하며,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축제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경시 공무원들 덕분에 문경시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문경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모두의 변함없는 시정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정성과 창출을 통해 문경의 더 큰 변화를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립박물관 기공식 성황리 개최

영천시는 지난 21일 영천시립박물관 기공식을 화동동 134번지 일원 영천시립박물관 건립부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최기문 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도·시의원, 국립경주박물관장, 지역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천시 첫 공립박물관인 영천시립박물관은 문화유산의 보존·연구와 전시를 위한 거점시설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2021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함으로써 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날 기공식을 가졌다.

영천시립박물관은 연면적 4703㎡,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다. 주요시설로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어린이박물관, 놀이라운지, 세미나실,



아외 체험놀이공간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교육·놀이·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시는 박물관을 체류 유휴 구입 및 기증 운동을 통해 현재까지 약 2,300여 점을 확보했다. 전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어제를 넘어 오늘과 내일로 가는 영원의 길에 함께할 영천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2025년 말 개관을 목표로 한다.

최은하 기자

청도군의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청도군의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15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감사에 관한 보고를 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결산 금액은 세입 9300억원, 세출 6129억원으로 이월금 189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06억원이 발생했다.

결산감사 대표위원인 전종용 의원은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개선할 것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그리고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 등 11가지 권고사항 등을 보고했다. 한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적극적인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 집단민원 적극 대응 철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설립 방안, 농업인 지원 확대 등 시정요구 41건, 건의사항 83건, 현시확인 2건의 총 126건의 감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 1건을 도출했다.

김효태 의장은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적사항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주민 편의증대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정례회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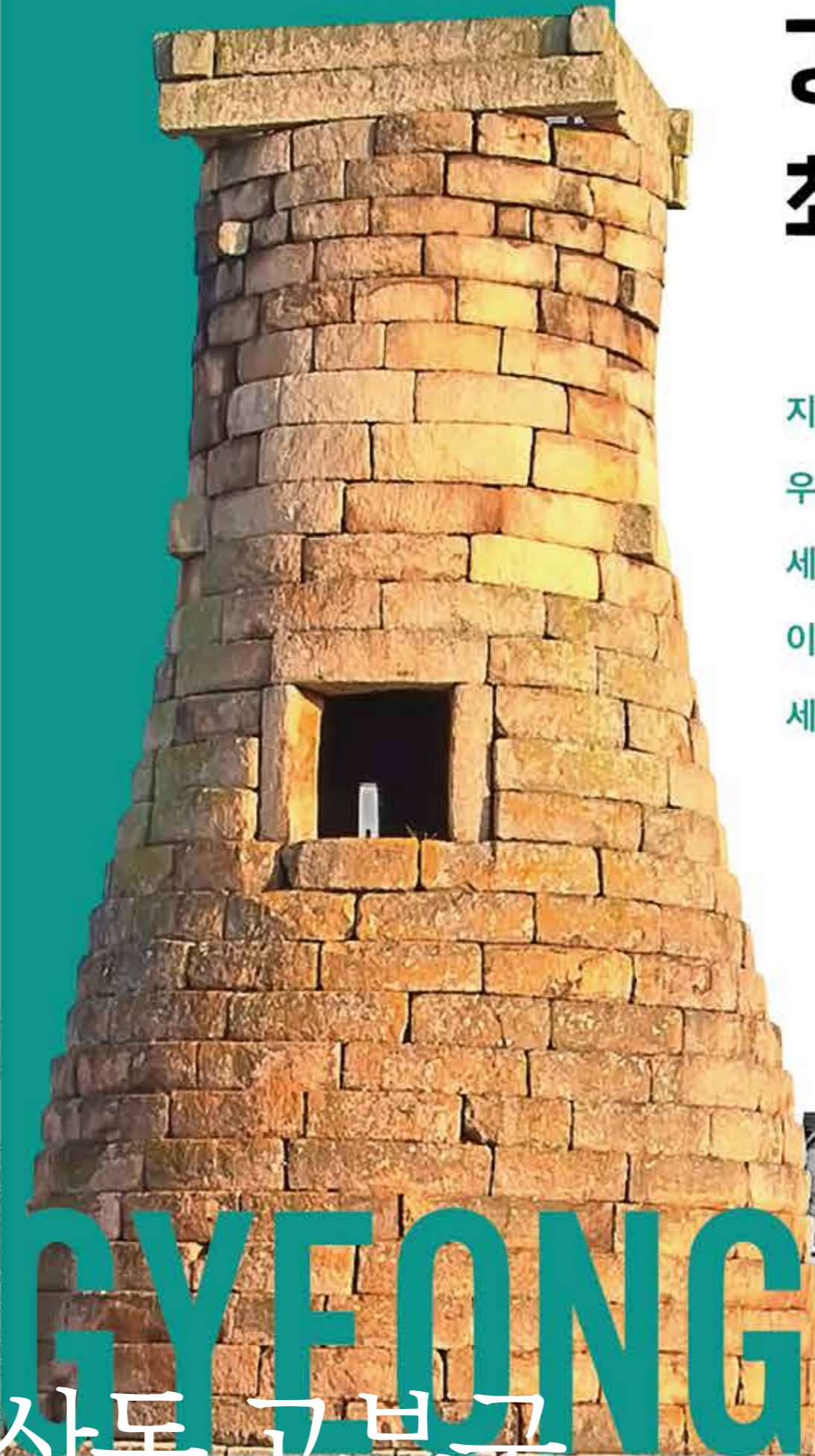
조여은 기자



2025 APEC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지금 경주는 APEC 중
우리가 함께 한 경주
세계로 향하는 경주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고령시사도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APEC 정상 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력을 위한 국제회의의 기구입니다.
21개국 정상 및 대표단, 기업인 등 6,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